

# The Harvest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소식지  
2024.10월 Vol 3.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연장교육원

## 10월 강의안내

### 강의일정

| 강 의 명                  | 교 수         | 강 의 기 간         | 시 간              | 수강료 |
|------------------------|-------------|-----------------|------------------|-----|
| 바울서신의 구약인용             | 박성수         | 연중              | 목 오후 2시          | -   |
| 사사기 전공                 |             | 연중              | 주일 오후 8시         | -   |
| 치유기도 선교                | 장성천         | 연중              | 목 오전 10시30분      | -   |
| 디지털시대와 선교(3기)          | 안정위         | 연중              | 목 오후 8시-9시30분    |     |
| 헬라어 왕초보                | 김재수         | 연중              | 수 오후 1시-2시       | -   |
| 누가복음 강독                |             | 연중              | 수 오후 2시          |     |
| 성경속으로 걸어가기<br>(구약역사정리) | 성용오         | 10. 30 ~ 11. 27 | 수 오후 8시30분-9시30분 | -   |
| 성경적 구원론                | 김종구         | 09. 24 ~ 10. 29 | 화 오후 7시-9시       | 3만원 |
| 가족치유상담 지도자과정           | 오광복,<br>이은경 | 09.09 ~ 10. 28  | 금 오후 9시          | 3만원 |
| 리더십과 기도상담_용서           | 이도희         | 10.08 ~ 10. 29  | 화 오전 10시         | -   |
| 책 읽기를 통한 치유            | 여미선         | 10.11 ~ 11. 08  | 금 오후 9시-11시      | -   |
| AI 그림그리기               | 이영미         | 10.8 ~ 10. 24   | 화,목 오후 9시        | 3만원 |
| 10가지 예술테라피 체험과 성장      | 서금순         | 10.07 ~ 12. 09  | 월 오전 10시-12시     | 7만원 |

### 수강신청 시 참고사항

- ▶ 강의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 수강료 표시가 없는 강의는 무료 강의입니다
- ▶ 수강료 입금계좌: 카카오뱅크 7979-4084-345 한정원(납부자이름+과목명 기입)
- ▶ 강의신청 <https://harvest-mission.com/>

# 목 차

- ✓ 아빠 선교사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딸에게(3)\_ 이요셉 선교사(7)
- ✓ 품격 있는 행복한 선교사\_ 이성상 총장(13)
- ✓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마 23:23)\_ 김재수 교수(22)
- ✓ 건강하고 성숙한 분노 처리 방법(2)\_ 오광복 교수(30)
- ✓ 새벽 종소리\_ 어미선 선교사(35)
- ✓ 교회 갱신과 세계선교를 위한 4차 로잔대회 의미\_ 김현진 교수(41)
- ✓ 성전 모티프로 보는 기독교론\_ 나주아 교수(47)
- ✓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을 소개합니다\_ 성보경 단장(53)
- ✓ 절대영어를 통해 영어를 정복하십시오\_ 김양섭 교수(59)
- ✓ 남기선 시인의 시 읽는 시간\_ 남기선 시인(65)



Source unsplash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OPEN 강의 수강 안내

-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의 모든 강의는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을 더 넓고, 깊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 ※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박사학위자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규신학대학교에 못지않은 강의를 시간, 공간, 재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강좌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미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 연장교육원이 제공하는 섬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강의 신청 방법  
홈페이지 <https://harvest-mission.com/> 를 방문하셔서 강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을 찍으면 자동으로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강의 신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21건

**신행동**

성공로 교수의  
열왕기와 선지서

**열왕기와 선지서 정리**  
구약성경 열왕기서 즉 분열왕국시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 2024.07.01 ~ 2024.08.31  
☎ 성동우 교수  
☎ 중 교육

**신행동**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혼스러운 복음심 가운데 움직여야 하...

☎ 2024.07.01 ~ 2024.08.07  
☎ 정달 교수  
☎ 중 교육

**신행동**

리더십과 기도상담

**리더십과 기도상담**  
크리스찬 리더로서 복음에 관한 성경적 제약을 세우며, 침묵기도로써 가장 불행하...

☎ 2024.08.01 ~ 2024.08.31  
☎ 이두희  
☎ 중

**신행동**

1일영성훈련

**1일영성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치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성장...

☎ 2024.08.01 ~ 2024.08.31  
☎ 이두희  
☎ 중

**신행동**

무슬림 복음전도에서 우리의 질문

**무슬림 복음전도에서 우리의 질문**  
장외적 접근이 필요한 전 세계 무슬림 복음전도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복음전도...

☎ 2024.08.01 ~ 2024.08.31  
☎ 김유철 교수  
☎ 중 교육

**신행동**

십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F)

**십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F)**  
여름과 드래미컬스 이론을 바탕으로 매이를 법안이 만든 부모교육 과정으로 하...

☎ 2024.08.01 ~ 2024.08.05  
☎ 우주현 교수  
☎ 중 교육

**성서**

성서속 향유

**성서속 향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드린 물약을 제형해 사제...

☎ 최미경 교수  
☎ 중 문화인

**성서**

헬리어 기초

**헬리어 기초**  
6주간 헬리어 기초 발음, 헬리어 현재 영감 문법 (음관형성, 영감) 학습하여 헬리어...

☎ 김재수 교수  
☎ 중 교육

**성서**

치유기도 선교

**치유기도 선교**  
바른 기도, 기도의 능력, 기도 사역을 통해 무능의 강해를 경험할 수 있다...

☎ 장성진 교수  
☎ 중 교육

**성서**

바울서신의 구약 인용

**바울서신의 구약 인용**  
신약성경의 바울서신 중에 구약인용 본문을 갖고 있는 헬리어 학문을 다루어...

☎ 박성수 교수  
☎ 중 교육

**성서**

아시아 교회사

**아시아 교회사**  
아시아 교회의 태동, 성장, 그리고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 최아영 교수  
☎ 중 교육

**성서**

가족치유상담지도자

**가족치유상담지도자**  
많은 사람이 상처와 치유와 회복 없이 가정을 돌, 교회사역, 선교사역에 하지...

☎ 우원복 이은경 교수  
☎ 중 교육

## 10월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오픈강의 목록

좋은 강의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겨울작가 이영미 선생

강의 제목: AI 그림 그리기

강의료: 25만원(22만원은 하베스트에서 지원) 중 3만원

일시: 10. 8일(화), 10일(목), 15일(화), 17일(목), 24일(목) 오후 9시

수업목표: AI그림을 통해 월 100만원 수익화 창출 /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yKukTRg>

안정위 교수

강좌 : 디지털시대와 선교 3기 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20:00- 21:30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bMrFR0f>

김재수 교수

강좌명 : 헬러어 왕초보 / 매주 수요일 오후1시-2시

강좌명 : 누가복음 강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시작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JJKOJud>

장성천 교수

강좌명 : 치유선교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HK7YYAd>

오광복 이은경 교수

강좌명 : 가족치유상담 지도자과정(마음치유/가족치유)

일시 : 9월9 - 10월 28 / 매 금요일 오후 9시 / 수강료 : 3만원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HuPMAd>

김중구 교수

강좌명 : 성경적 구원론

일시 : 9월24-10월29 / 매 화요일 오후 7시-9시 / 수강료 : 3만원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QI2LIRd>

이도희 교수

강좌명 : 리더십과 기도상담-용서

일정 : 10월8-29 / 화요일 오전 10시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Hs19rHg>

어미선 선교사

강좌명 : 책 읽기를 통한 치유

일시 : 10월11-11/8 / 금요일 저녁 9-11시

<https://open.kakao.com/o/g40kmyPg>

서금순 교수

강좌명 : 10가지 예술테라피 체험과 성장

일시 : 10월7 - 12월9 (10주) / 매주 월요일 오전 10-12

수강료 : 7만원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1qi1gnd>

성용오 교수

강좌명 : 성경속으로 걸어가기(구약역사정리)

일시 : 10월 30 - 11월 27 / 매주 화요일 오후8~9시(60분) / 5주

수강료 : 3만원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JVt6xuf>



### 아빠 선교사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딸에게 (3)

## 선교지에서 만난 첫 번째 위기

이요셉 선교사

선교 훈련을 마친 후, 교회와 교단 선교본부와 소통하면서 목사 안수식과 파송식을 함께 하였다. 동시에 99월 2월에 파송 받아 가게 될 선교지를 탐방하고 먼저 계신 선교사들을 만나 여러 정보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착해야 할 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해 5월에 파송식을 한 뒤 나갈 준비를 마치고 6월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할 때, 너의 나이는 만 4살, 둘째는 2살, 막내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너희들을 데리고 갔단다.



선교사는 반드시 자신이 나갈 선교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선교지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채 가는 것은, 올바른 선교사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파송교회와 선교본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갈 것을 추천받았으나, 우리는 선교지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갔는데 어찌 되었든 바른 모습은 아니었지. 그때에는 아직 인천공항이 없었기에, 우리는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출발하였단다.



너희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깨웠는데도 누구 하나 보채지 않았고 일어나 공항으로 가서 짐을 보내고 엄마 품에 막내 그리고 아빠의 품에 동생을 안고 너는 조그만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아빠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지. 크지 않은 현지 비행기로 7시간 정도 지난 뒤 알마타 공항에 도착했었지.

공항에서 계단을 내려가니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걸어서 공항 내를 들어가 밖으로 나가니 우리를 마중 나온 선교사님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준비된 숙소로 갔단다.

이미 시간은 저녁이 훌쩍 넘었지만 백야로 인해 거의 10시가 넘어서까지 어두워지지 않아 너희들에게 밤이 되어 자야 한다고 했을 때 날이 아직 밝은데 자야 하느냐 말하는 너희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구나.

구소련에서 해체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도 곳곳에 레닌 동상이 많이 있었고, 공산당의 잔재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 그곳은 경제적으로 아직 어려운 시기였기에 많은 나라들에 개방되어 경제적 성장을 시도하는 시기였단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알마타가 아닌 동카자흐스탄으로 시베리아와 가까운 곳으로 Ust-Kamenogorsk 라는 지역이었어. 그곳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6년 전에 가서서 사역하시는 선임선교사 한 가정과 단기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한 국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었단다.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그리고 기차로는 30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지.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여 오래된 아파트 4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었기에 너희 세 명을 안고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들었던다(^^). 교회와는 가까운 곳으로 걸어서 다니기에 어렵지 않았어.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잘 적응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여름에는 백야로 인해 뜨거운 날씨였지만 건조해서 그늘에만 가면 시원했고 집 가까운 곳에 울바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눈 녹은 물이 흐르는 것이라 시원함보다 차가웠단다. 그 시기에는 아직 식료품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건이 있을 때 사지 않으면 언제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시기였어. 그래서 90년대 초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빵 하나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으나 식료품이 부족하기는 했단다.

그곳에 도착한 지 2달이 되는 8월 중순쯤 막내가 잘 먹던 우유를 먹지 못하고 토해서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나아지지 않다가 9월에 초에는 검은 변을 보았기에 급히 알마타에서 코이카로 봉사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장중첩이 의심되니 급히 알마타로 내려와야 할 것 같고 제일 좋은 것은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선임선교사님께 말씀드리고 본부와 교회 그리고  
중앙아시아 코디네이터(당시에는 있었음)에게 상황을 전달하며 위기에 대한  
대처를 의논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었지. 이것이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선교지에서의 위기였단다.

우리의 여권은 거주 등록을 위해 정부 기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급히 찾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코이카 형제의 도움을 받아 막내는 비행기 편으로 알마타로 먼저 갔고, 우리는 여권을 받은 후 택시로 11시간 동안 이동하여 알마타로 갔지. 너는 데리고 갈 수 없어 고려인 성도 아줌마에게 맡기고 더 어린 둘째만을 데리고 알마타로 갔단다.

우리가 출발할 때 알마타에 계신 선교사님과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저녁 비행기 편으로 엄마가 둘째와 막내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땐 통신수단이 별로 좋지 않아 알마타로 가는 중간중간 연락을 해야 하는데 잘 안되었어. 저녁에 알마티 공항에 어렵게 도착하여 찾아보았지만 만나기로 한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어. 전화해 보니 만나기로 한 선교사님 집에 막내가 있다는 거였어. 알마타에 비행기로 도착한 코이카 형제에게서 막내를 맡은 후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괜찮다 싶어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막내가 별로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던 것을 모르셨던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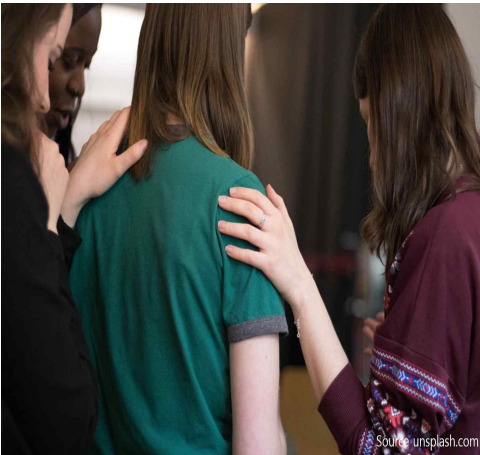


그날 밤 급히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른 통로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며칠이 지나서야 제3국을 걸쳐 엄마와 막내는 오랜 시간 공항에서 대기한 후 비행기에 올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마중 나온 선교 목사님과 급히 예약했던 병원이 아닌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소아과 선생님이 모여서 막내의 상태를 살피며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빠른 날짜에 수술하여 십이지장 폐쇄증이란 것을 알았지.

그 기간에 파송교회와 본부 그리고 주변에 기도 모임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지. 엄마

는 혼자 그것을 감당하느라 힘이 들었는데 감사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인해 많은 격려를 받았단다. 아빠는 둘째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둘째의 여권이 없어서 기차로 이동함. 그때는 아이의 별도 여권이 없이 모두 엄마의 여권에 기재되어 있었어) 다시 우스찌(약명)로 돌아와 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막내의 소식을 노심초사 기다렸단다. 감사하게 혼자 있었음에 잘 지내준 네가 고맙고 기뻐했단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중보와 파송교회에서의 배려로 긴급 수술을 하여 원인을 잘 찾아 수술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 수술 후에 한 달 만에 무사히 선교지로 돌아와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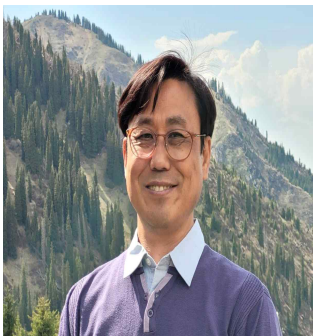


감사하게도 위기의 순간에 많은 분의 도움과 협력으로 막내가 건강을 회복했지만 앓고 일어서는데 또래 아이보다 늦었던 원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팠을 때, 심한 열 경기로 인해 뇌의 상처가 생겨 손과 발에 신경전달이 잘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막내가 지금도 손과 발이 사용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엄마 아빠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많단다. 어쩌면 엄마 아빠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아닌가 싶다.

선교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고려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선교본부와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 간의 밀접한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단다. 그리고 위기 발생을 생기기 전에 미리 여러 케이스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단다.



이후 아빠는 언어 공부를 하면서 교회 청소년 사역을 도우며 선임선교사님과 팀 사역을 하였지. 우스씨는 빠르면 9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는데 걸으러 보기엔 한국처럼 바람이 날리는 날씨가 아니다 보니 서서히 스며드는 날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너를 썰매에 앉히고 유치원에서 데려오다가 네가 거의 동상에 걸릴 뻔한 순간도 있었단다. 그런 날씨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아빠가 실수했지. 집 유리창에 얼음이 어는 두께를 보고 온도가 어떤지를 대충 짐작하게 되었단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지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단다.



#### 이요셉 선교사

부인 고루스 선교사와 함께 1999년  
카자흐스탄에 파송을 받아 사역하다  
2008년 사역지를 인도 콜카타로 옮겨 사역하고 있다.  
자녀(예희, 예원, 경빈) 중 예희 자매는  
WMTC에서 훈련을 받은 후 선교사로 헌신한  
형제와 내년 5월 결혼한 후 파송을 받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이다.



## 품격 있는 행복한 선교사

이성상 총장

### 1. 품성이란 무엇인가?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뭄바이 (Mumbai)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891년 22살 된 간디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1891년 6월 7일 주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안내 담당자가 그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간디는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았고 교회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간디에게 다양한 종교와 차별, 그리고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간디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힌두교도로 남았던 이유는 교회 안에 품성이 계발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

우리 주변에도 품성이 계발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보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교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예수)를 예배하는 갈릴리인의 종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선 그리스도교를 인정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네뿐 아니라 로마인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주 후 250년 로마제국에 붙어닥친 전염병으로 인구 20%가 숨졌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감염을 우려하여 길거리에 버린 병든 환자를 간호했고 시체를 매장해 주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보다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되었지만,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문화가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또한 간호하다가 면역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타 시민과 차별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었고 품성의 삶이었습니다.





## 2. 한국교회와 품성 생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리가 연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비아냥거리므로 드러내어 전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설교에 매몰되어 예수 믿은 이후 변화된 그리스도교인의 삶인 품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품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전도가 중요시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전도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앞선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는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가나안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쇼핑하듯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만 듣는 떠돌이 그리스도인들 즉, 플롯팅 크리스천들이 급속하게 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힘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으며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관심이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2023년 1월) 결과 응답자 74%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3. 새로운 피조물과 성품의 변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in the image of God)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최고의 존재로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에서 '만드신'은 '포에마(ποίημ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의미를 지니는데 이 단어에서 시(poem)'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편의 시를 쓰듯이 군더더기 없는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람에게 죄의 세력(power of sin)을 심어 주었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며 대적하여 사탄을 위해 마련된

불 못에 들어갈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사탄을 통해 들어 온 죄의 옛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된 본성(성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稱義, justification)라고 부릅니다. 칭의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옛 죄의 성품과 새로운 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욕심(flesh desires)을 이기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성품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God's people)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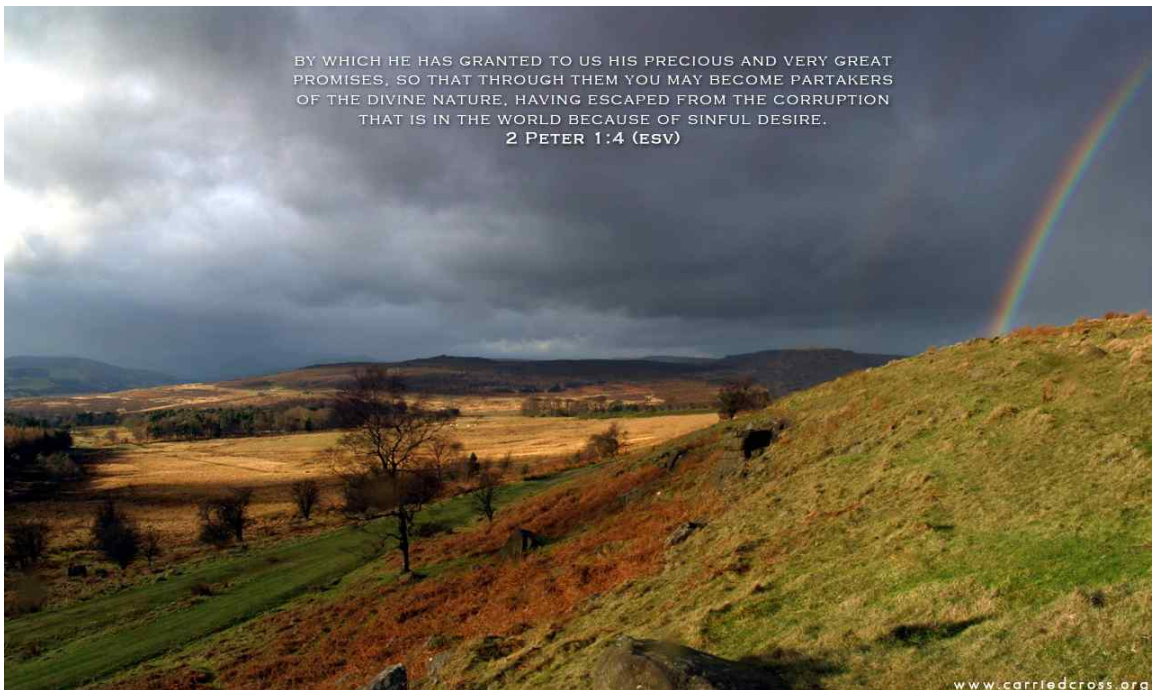


Source PIXABAY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단히 배우고 훈련을 통해 계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통해 믿음과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품성과 함께 성품이란 표현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란 구원받은 속사람을 일컫습니다. 신성한 성품(divine nature) 신성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 본질(본래)적으로 타고난 성향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의의 성품과 죄를 범하므로 갖게 된 죄의 성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 4. 계발되어야 할 품성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죄의 성품을 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justification)라고 합니다. 그럼에는 인간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주신 후 품성을 계발하고 훈련하시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sanc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품성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품성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말, 행동, 태도를 통해 표현됩니다. 품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삶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계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갖게 되는 품성은 환경과 문화, 전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삶의 방식에 따라 반복하여 반응하면서 품성이 형성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단하므로 개인적인 품성은 구체화 되고 계발됩니다. 그러기에 품성은 사람마다 갖는 독특한 성질 중에서 반복된 삶의



패턴 속에 비교적 지속해서 나타나는 특성 또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nature)은 사람의 내적 성질이나 됨됨이로서 선한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악한 사단의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품성(character)은 의의 성품을 받은 이후 성령과 성경의 인도를 받아 주위의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마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품격있는 행동입니다. 품성(品性)은 성령의 인도와 성경 말씀으로 꾸준히 계발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품격이 높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타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Guido Reni - Moses with the Tables of the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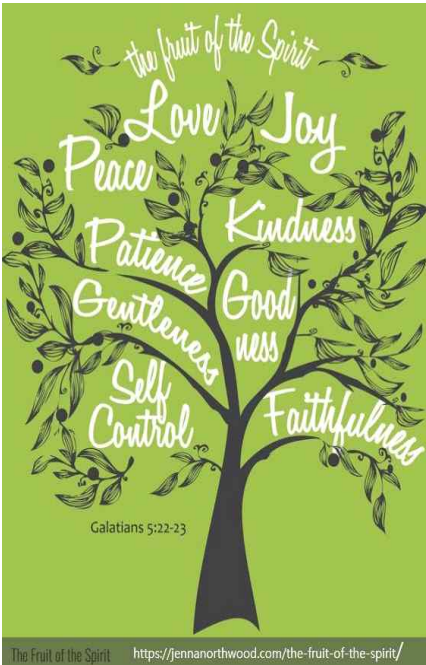
모세의 성격(性格)과 기질(氣質)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는 살인하였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으며,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들겨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칭찬을 듣는 품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민수기 12:3).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품성을 나타내는 품격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급하고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품성을 계발하여 최고의 품격 있는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힘쓰고 애써 품성을 계발하고 성장시켜 점차 성화 되고 품격 있는 선교사님들이 됩시다.



Source: Getty Images

## 5. 품성이 계발되는 과정



선교사님은 품성 계발을 위한 훈련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품성으로 빛어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품성을 계발시키기 위해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 친히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통해 품격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품성의 열매입니다. 품성 계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성상 총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선교학박사(D. Miss)

Asia Seminary of Leadership 교육학 철학박사(Ph.D)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30년 넘게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하베스트국제사역원, 태국 품성 계발연구원, 치앙마이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선교사들의 영성, 지성, 품성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마 23:23) 영원한 의무인 십일조

김재수 교수

세계 교회사 십일조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한국교회 십일조 역사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의무적 십일조 폐지론'과 '자발적인 십일조론'이 유튜버를 통해서 확산하여지고 있다. 이는 교회사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 현상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영향을 미친 십일조 폐지론자들은 종교개혁가들이다. 이들은 십일조가 성전 제사와 관련한 의식적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때부터 "자원하는 마음"에 근거한 십일조와 헌금이란 제도가 자연스레 등장하였다. 그러나 목회자들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게다가 선교 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의무적 십일조가 재시작되었다.

십일조 폐지론과 자발적인 십일조와 헌금론이 한국교회를 타격하는 현재의 한국교회 십일조에

대한 상황은 이미 경험했던 세계사 십일조 역사의 되풀이로 전개돼 가는 것 같다. 역사는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항상 제공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석의 필요성과 특성

성경 구절의 난제는 문맥을 고려하고, 원어 성경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난제의 하나인 신약의 십일조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십일조와 관련된 구절을 주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주석은 수학과 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주석은 헬라어 용어가 가진 다양한 뜻들과 문장의 문법을 성경 구절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그중에서 문맥에 맞는 최적의 의미와 번역을 찾는 것이다. 이때 주석자의 주관 즉 신학이 반영된다. 그래도 주석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이기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대한 번역들

마 23:23의 한글 성경은 다음과 같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여기서 연구과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이다. 이에 대한 헬라어 원문과 분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헬라어 본문 | ταῦτα | [δὲ] | ἔδει | ποιῆσαι |
| 行间역    | 이것들   | 그러나  | 당연하다 | 행하는 것은  |

|        |          |    |          |
|--------|----------|----|----------|
| 헬라어 본문 | κακεῖνα  | μὴ | ἀφιέναι. |
| 行间역    | 그리고 저것들은 | 아닌 | 무시하는것은   |

단어 분해

ταῦτα (대격 대명사) 이것들을 (율법의 중요한 것들)

[δὲ] (접속사) 그러나

ἔδει (비인칭 동사, 미완료) 그것은 당연하였다 (어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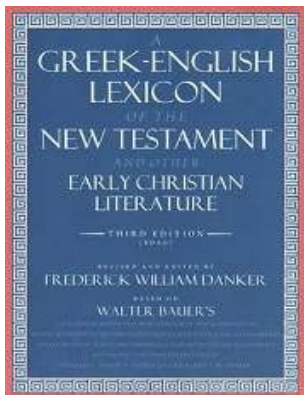
ποιῆσαι (부정과거 부정사) 행하기, 행하는 것은

κακεῖνα(접속사+대격 대명사) 그리고 저것들을, 혹은 저것들 역시  
(십일조 행하는 것들)

μὴ (불변화사) 아닌

ἀφιέναι (현재 부정사) 무시하기

이 헬라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완료 시제 형태 동사인 에데이(ἔδει)의 의미이다. 이 동사는 비인칭동사로서 그 어근의 의미는 “그것은 필요하다, 혹은 그는 해야만 한다”이다. 미완료는 전통적으로 과거시제 동사 즉 과거 사건을 서술하는 동사이다.



대표적인 헬라어 사전 BDAG(Bauer-Danker-Arndt-Gingrich)에서 에데이의 미완료의 의미를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했어야만 했다”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였다 (ESV, NAS, NET, NIV).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도 “그런 것들도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실천해야 했을 것이다”라고 영어 성경처럼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개역성경과 개정개역성경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번역하였다.

## 십일조 폐지론자들의 마 23:23 해석

마 23:23 은 의무적 십일조 실행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이 말씀 [마 23:23: 필자 삽입] 은 그 당시 당연히 십일조 의무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한시적인 말씀이지, 교회 십일조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던 시절의 초대교회는 당연히 십일조를 거두었



을 리가 없지요. 성전으로 돌아갈 십일조를 교회가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교회에 십일조라는 명목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출처: 예수 부활 이후 신약에 십일조가 없는 이유. 뉴스앤조이 2012.07.05)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십일조는 레위인들과 관련이 있는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다. 이 의식법은 주후 70년 성전 파괴 시까지 있었지만,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의무적 십일조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이레내우스가 처음으로 한 것 같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동조하였고 이들은 개신교의 십일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 재정의 빈약으로 목회자 자신들이 정당한 사례를 받지 못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의무적 십일조를 교회법으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신약에서 의무적 십일조가 없다는 주장이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확산하여지고 있다. 마치 십일조에 대한 역사가 한국 교회 내에서 되풀이되는 것 같다. 마 23:23에 대한 이런 주장들은 득세를 얻고 있지만 이 구절에 대하여 헬라어에 근거한 주석적 연구는 필자는 보지 못한 것 같다.

## 마 23:23에 대한 새로운 연구

---

최근에 신약 헬라어 문법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연이어 발표되어지고 있다. 포터 (Porter 1989:211), 맥케이 (McKay 1992), 덱커 (Decker 2001:47, 51), 스바트 (Swart 2005) 그리고 후프만 (Fuffman 2014: 224, 324) 등은 전통적으로 과거 사건을 서술하는 미완료 ἔδει가 과거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간적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마 23:23을 “그러나 이것들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을 행하는 것과 저것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 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번역한다.

이들 가운데 덱커는 십일조는 성도의 영원한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덱커에 의하면 이 구절은 마 23:23의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재설명하신 것이다.

마 23:23 후반부의 헬라어 구조와 관련하여서 후프만은 새로운 발견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문장은  $\delta\epsilon\iota$  + 부정사로 구성된 긍정 부정사 주어와 금지 부정사 주어를 가진 문장으로서 합법과 의무를 표현한다고 후프만은 주장한다.

그래서 후프만도 이 문장을 포터와 텍커의 번역처럼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는 것과 저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번역하였다 (Fuffman 2014: 224, 324). 후프만의 조사에 의하면  $\epsilon\delta\epsilon\iota$ +부정사 구문이 합법과 의무를 표현하는 구절은 신약에서 마 23:23 후반부와 눅 11:42 후반부, 그리고 18:1 이다.

이제 마 23:23 에 대해서 좀더 쉽게 설명하겠다. 텍커의 주장은 간단하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을 위해서 필자가 이를 이해한 바를 설명하겠다. 마 23:23 의 후반부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겠다.

$\tau\alpha\tilde{\upsilon}\tau\alpha$       $[\delta\epsilon]$       $\epsilon\delta\epsilon\iota$       $\pi\omicron\iota\eta\sigma\alpha\iota$   
 이것들을     그러나     당연히     행하는 것은

$\kappa\acute{\alpha}\kappa\epsilon\tilde{\iota}\nu\alpha$               $\mu\grave{\eta}$       $\acute{\alpha}\phi\iota\epsilon\nu\alpha\iota$   
 그리고     저것들을     아닌     무시하는 것은

마 23:23 의 미완료 에데이는 포터와 텍커는 초시간적(omnitemporal 혹은 temporally unrestricted)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후프만에 의하면 이 문장은 합법과 의무를 표현하는 긍정 부정사 주어와 역시 합법과 의무를 표현하는 금지 부정사 주어가 하나의 에데이 동사로 연결되었다.

이 문장을 문장의 품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접속사+ 부정과거 부정사 주어+그리고+ 금지 현재 부정사 주어.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란 접속사를 중심으로 두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동사 + 부정과거 부정사 주어 (합법과 의무를 표현)
2. 생략된 동사 + 부정어+현재 부정사 주어 (합법과 의무를 표현)

문장 1은 원문에서 동사 미완료 ἔδει 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율법의 중요한 것들인 의와, 신과 인을 행하는 것들을 언급한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의 성취 유무와는 무관하게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들이다.

이것이 에데이를 해결하는 문맥이다. 그래서 미완료 에데이는 과거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는 무관하게 항상 지켜야 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번역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문법적으로 이는 격언적 미완료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문법책에서는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비시간적 미완료,” 혹은 “비과거 미완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마 23:23 의 후반부는 “율법의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번역되어져야 하며, 또 그런 의미를 가진다.

문장 2 에서는 동사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역시 ἔδει 를 의미한다. 이미 에데이의 의미를 문장 1에서 찾았다. 이 의미를 문장 2에 적용하면, 이 문장은 “십일조 행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번역되어진다.

요약하면 미완료 ἔδει + 부정사는 과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는 무관하게 합법과 의무를 표현한다. 이를 고려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십일조를 무시함이 없이 율법의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혹은 율법의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과 십일조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덱커는 “십일조는 영원한 의무”이다라고 주장한다.



## 요약과 결론

---

마 23:23의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재해석하신 것이다. 이 문장에 나타나는 미완료 ἔδει 동사는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시간과 무관한 의무를 표현하는 동사로서 “당연하다, 혹은 필요하다, 혹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에데이를 사용하셔서 십일조를 실행하는 것은 율법의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한 성도의 의무라고 십일조를 재해석하셨다. 그래서 덱커는 “십일조는 영원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라고 주장한다.



## 첨언: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

1. 주석은 수학과는 다르지만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이다. 덱커의 주장에 근거한 이 설명은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주장이라고 필자는 생각이 되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덱커와 같이 번역하지만 십일조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2. 문장 요소의 불일치: 이 문장의 요소들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는 이 당시 문헌들

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의미구성(constructio ad sensum) 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서 구성된 구조이다.

3. 독자에 대해서, 마 23:1은 독자가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 23:8에서는 “너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화로다”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독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 23:23에 나타나는 십일조에 대한 말씀은 한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마태는 돈호법을 이용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인용하여 마태는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3. 구약의 십일조에 대하여, 구약에는 레위인, 가난한 자, 축제를 위한 세 종류의 십일조가 있었다 이를 계산하면 매년 23%의 십일조를 구약의 유대인들은 드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일조는 이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는 더 연구를 해야 할 어려운 과제이다.

4. 구약의 십일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가 언급되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이는 히 7장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증명구절이 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재수 교수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Ph.D 신약)

현재 남아공에서 신학 강의와 교회개혁 사역을 하고 있으며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의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다.



## 건강하고 성숙한 분노 처리 방법(2)

오광복 교수

###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기’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대개 ‘자기감정 표현’이나 ‘자기 의사 표현’이 제대로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라왔다. 어른이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윗사람만이 ‘자기 감정표현’과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저 윗사람들에게 맹종하기를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나 감정표현이나 의견이나 자기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그 결과 여간해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접하거나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무시하기가 십상이다. 그 결과로 상처받고 분노가 쌓이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인생이 힘들어진다.

‘자기주장’은 자기의 생각과 견해와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꼭 필요하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때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와 갈등을 예방하게 도와주고 서로 이해와 수용과 배려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힘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하면 반대나 다른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원치 않는 선택을 하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비밀비재하게 만나볼 수 있다.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함부로 대접받거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거나 분노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감정의 짐이 없어지고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불필요한 분노도 사라질 것이다.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식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한다면 어려서부터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며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기’는 불필요한 분노를 없애주며 성숙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세우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진실한 말-자기주장)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처럼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며 사는 것이 주를 향해 성장해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 ‘나 전달로 감정 말하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상황들은 수없이 많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나 직장 관계에서 힘들고 분노할 일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럴 때마다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나 전달로 감정 말하기’를

배우면 분노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나 전달로 감정 말하기’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집안일이 많아 혼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TV만 보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날 것이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거나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여보, 많은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니 힘들어요!’하고 자신의 힘든 감정을 말로 남편에게 전달한다면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 남편 대부분은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 기꺼이 아내를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나 전달로 감정 말하기’는 내가 힘들고 분노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 힘든 감정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공격받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협조하게 된다.

아내가 종종 부엌일과 집안일을 하다가 힘들 때 나를 공격하지 않고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아내를 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돕게 되었다. 남편이 운전을 빨리하여 겁이 날 때 ‘왜 그렇게 빨리 달려요!’라고 공격하는 대신 ‘여보, 무서워요!’라고 감정을 전달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안전함을 느끼도록 기꺼이 속도를 낮출 것이다.

‘나 전달로 감정 말하기’는 실제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이민정 씨는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 전달로 감정 말하기’의 수백 가지 예들과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나의 힘든 감정을 ‘말로 전달하기’는 많은 분노할 일들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숙한 분노 처리 방법이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힘든 감정을 말로 전달할 때 상처 주는 죄를 범치 않고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용서하기’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은 분노나 복수 대신 ‘용서하기’이다. 위의 건강한 분노 표현을 사용해도 통하지 않는 막가파(?)와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산다면 마치 불을 품에 안고 사는 것처럼 자신만 고통스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그날의 분노를 그날로 해결하고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깨끗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쓴 뿌리로부터 자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용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한 번 용서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주께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용서한 만큼 주를 더 닮아 가는 삶으로 변화 받게 될 것이다.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용서는 주를 닮아 가는 삶의 필수요소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오광복 교수

CCC에서 17년간 전도 및 제자화 사역, SEED 선교사, Midwest University 상담학 교수 역임, 가족성장 상담센터 소장,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 교육원 상담학 교수로 상담사역을 통한 내적치유, 가정사역을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 새벽 종소리

어미선 선교사

### 새벽 종소리 / 어미선

대학에 들어가며 꿈이 하나 있었다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가 되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 2학년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 가시며 나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칠촉 같은 어둠이 나를 덮쳤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는지를 끙끙거리며  
날개 꺾인 한 마리 새가 되어 통굴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술과 담배로 나를 죽이던 술한 날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얼마 않은 고아처럼 훌쩍이며 그 꿈을 그리워했다,  
의미 없는 삶에 마침표를 찍고 싶던 바로 그 날,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 할 이 없을 거라고  
마음 속 아이에게 유언을 남기고 어둠의 문턱을 넘으려는 그 순간,

새벽 종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신 이에!  
당신이 그 날 건네 주신 열쇠로  
나는 참 행복을 열었습니다.



이 시는 저의 간증 시입니다.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시고 저의 방향은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죽음을 동경하던 대학 3학년 시절, 주님은 4영리 책자를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여름수련회 마지막날,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만 24년 만에 인도 땅에 왔습니다.

저는 인도 웨스트벵갈 실리구리에서 사역하는 어미선 선교사입니다. TIM(두란노해외선교회) 파송으로 이곳에서 14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저희 부부는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선교사 훈련을 마칠 즈음 단체 본부장님을 통해 인도에 가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Yes, No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계지도를 펼쳐 인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5일간 에스라 통독 세미나에 들어가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서 4:11절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인도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2011년 이곳의 인구는 12억이었습니다. 인도 땅에 와보니 길거리에 소와 개와 원숭이 등등 동물도 참 많았습니다. 이 땅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2012년 7월 델리 땅에 도착했습니다. 단기 팀이 올 때마다 동네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5~6개의 가정교회가 모여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즐겁고 재미있게 5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맞이하여 1년간 사역지를 비워야 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 부부는 교회 개척 사역에서 제자 양육 사역으로 완전히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델리와 바라나시에 세워진 교회는 현지인에게 이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실리구리로 이전하여 현지인 선교사 지망생을 발굴하여 훈련 및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6가정과 함께 “TSAM (Tyrannus South Asia Mission)”이라는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 사역을 희망하는 이들을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변 나라로 파송 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자를 연결해 줍니다. 3년간 4명의 사역자를 파송하였고, 현재 2명이 T 국으로 가기 위해 서류를 진행 중입니다. 선교에 헌신하였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신학교에 먼저 보내고, 졸업 후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5명에게 신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T 지역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학교가 거의 없어 매년 2회 교회 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한국의 단기 팀들과 함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를 마친 후 9~10개의 교회학교가 생겼습니다. T 지역에 교회학교 세우기 프로젝트를 10년간 지속할 것입니다.





올해도 7주간 9명의 현지인 선교 지망생들과 합숙 훈련을 마치고 6월에 두 자매를 라오스로 파송하였습니다.



그 후 작년에 훈련을 마친 청년이 개척한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러 갔습니다. 바로 연이어온 한국 여성팀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두 팀과 사역하기 전 3일 전부터 조금 상처가 났었는데 팀들과 함께 멀리 사역하러 다니느라 병원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상처 난 발가락이 괴사하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검사해 보니 양쪽 다리 혈관이 여섯 군데가 막혀서 산소공급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인도에서 괴사한 발가락 피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도 병원에서는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서 스텐트 수술을 할 수 없고, 바이패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동맥혈관 수술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께 결과를 보냈더니 세브란스 담당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고,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후 한국 단기 팀을 받아야 했기에 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거의 3년을 가지 않아서 의료보험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 고민 끝에 결국 한국에 가서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 선생님이 모든 절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입원 당일 오후에는 오른쪽 다리 혈관 확장 수술을 하였고, 그다음 날에는 오른쪽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시술과 수술을 하면서 나의 기도는 절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주님 한국에 보험이 없어요. 수술비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주세요” “수술이 잘 되고 속히 아물어 인도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오는 팀들을 받아야 했기에, 남편 옆에 함께 하지 못한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상실감이 있지는 않을까!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까!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이 온통 구정물처럼 혼탁하여 힘들 때는 시편을 필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이 지나며 주님은 나에게 평안의 선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온전히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딸아”

그날 나는 풍랑 위를 걸어오는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실밥을 뽑으러 가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수술한 발가락이 계속 괴사하는 것 같다면 두 주 동안 지켜본 후 발가락 절단과 혈관 시술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마음이 아파서 하루 침묵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응답이 왔습니다. 재수술하지 않고 치유되어도 감사, 재수술해야 한다면 병가를 받아 한국에서 보험이 나오면 왼쪽 혈관 시술도 하고 인도로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같은 발가락을 세 번 수술하고 혈관 확장 시술을 두 번 하고 매일 항생제를 다섯 차례 맞으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단한 발가락에서는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 과정은 좀 아프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수술하는 날 시편 114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석을 연못 되게 하고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다.” 나를 믿어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자다. 주님 그렇습니다. 남편을 지으신 주님, 그를 깨끗하게 치료 하셔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미선 선교사

TIM 소석으로 남편 어영선 선교사와 함께 인도의 실리구리에서 사역하고 있고,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에서 '책 읽기를 통한 치유'를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편집자: 어영선 선교사님의 완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 교회 갱신과 세계선교를 위한 4차 로잔대회의 의미

김현진 교수



[1차 로잔대회 로고]

4차 로잔대회가 9월22-28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이란 무엇인가? 로잔 운동의 태동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스웨덴 옅살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선교의 정의를 인권 회복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통하여 “인간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인간화’(Humanization)”로 규정하였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이러한 선교의 방향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복음화’(Evangelization)’에 중점을 둔 선교 운동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John Stott)와 함께 150개국에서 온 2,400명의 선교지도자를 결집해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국제적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1차 로잔대회”였다.

### 로잔의 선교 신학

로잔대회에서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 문서인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 1974),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 1989), “케이프타운 서약”(Capetown Commitment, 2010)을 계속 발표했다. 로잔의 선교 신학은 선교의 필요성과 목적과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을 끌어냈고, 21세기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 미전도 종족 선교



1차 로잔대회에서는 특히 랄프 윈터(Ralph Winter)가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 선교"를 주창했다. 미전도 종족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고 모국어로 된 성경도 없는 종족 집단 (People Group)으로서 현재 약 7천여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다. 랄프 윈터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선교의 우선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체적 선교



1차 로잔대회에서는 또한 남미 신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르(Samuel Escobar)와 르네 빠디아(Rene Padilla)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행하는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로잔 운동은 전도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모두 균형 있게 추구한다.

### 10/40 창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대회에서 선교전략가 루이스 부시(Lois Bush)는 "10/40창"(Ten Forty Window)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10/40창 지역에 선교 사역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케이프타운 서약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로잔 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town Commitment)을 발표하였다. 이 서약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을 통한 선교"와 일터 선교 (Business as Mission)도 강조되었다. 이 서약의 주 작성자는 영국의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였다.

## 4차 로잔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의 목적은 2050년까지 각 종족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글로벌 교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22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경청, 모임과 협력적 사역을 통하여 그 목적을 성취해나갈 것이다.

## 로잔 운동의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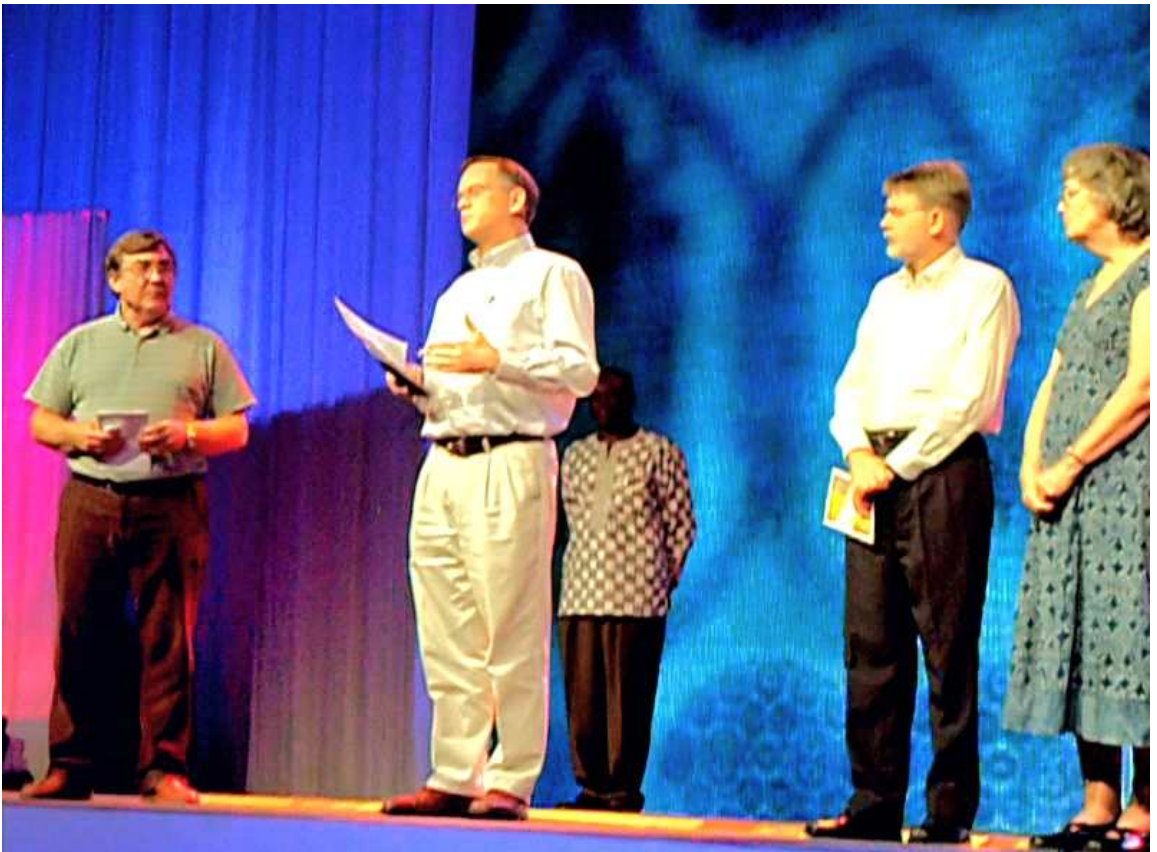
예수님이 분부한 '대위임령' 과제의 완수를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인 "겸손, 정직, 검소함"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이다. 이것이 로잔 운동의 정신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속하시고 부르신 그의 백성의 실패와 불순종과 반역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끌어당기는 세 가지 우상은 권력과 교만, 인기와 성공, 부와 탐욕이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가 교회에서 지위와 권력에 집착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기를 숭배하므로 실제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를 과장 하거나 부정직하게 보고한다. 옛 거짓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부정직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로잔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겸손과 정직과 검소함, 거룩함, 연합, 포용성을 보여줄 때만이 제자 삼는 사역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역이 되며, 선교 사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로잔 운동의 공동체성

로잔 운동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선교를 넘어 "하나 된 교회에 입각한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한다. 로잔 운동의 공동체성은 서로 사랑 하여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통한 복음 증거, 전도를 위한 협력, 인종차별과 계층과 성, 그리고 나이의 장벽을 초월한 일치,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성, 박해받는 자들과의 연대 등을 포함한다.

로잔 운동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몸을 보여주는 것" (요 13:34-35) 이 세계선교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복음 증거의 의미를 강조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세계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역설한다.



### 사도 바울의 선교 비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18-19)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루리곤(발칸 반도) 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1) 말(Words): 말로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직접 전하였고
- 2) 일(Works): 불신자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 3) 표적과 기사(Wonders):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균형이 있게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로잔 운동은 말(복음 전파)과 일(사회적 책임)은 강조하였으나, 표적과 기사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선교에는 미진하였다. 그 이유는 로잔 운동의 신학자 존 스토틀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는 말과 봉사와 성령의 능력이 균형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행 1:8).

#### 교회 갱신과 세계선교를 위한 로잔 운동의 의미

겸손, 정직, 겸소함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로잔 운동의 정신은 한국교회의 갱신에 소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잔 운동은 기독교계에서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제정, 미전도 종족 선교, 10/40 창 개념, 총체적 선교, 일터 선교, 삶을 통한 선교 개념 등을 제시하여 가장 성경적인 선교의 세계적 플랫폼이 되었다.

로잔 운동은 어느 한 교파나 선교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음주의 권의 연합 선교 운동이 되어서 세계선교에 막중한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4차 로잔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복음을 통한 남북통일,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 중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자!



김현진 교수

남아공 Potchefstroom University 신학부 박사(Ph.D.)

평택대학교 신학과 특임교수, 한국선교신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현재 태안 사림의 공동체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 글은 <https://m.blog.naver.com/hyukim0212/223592150356> 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전 모티프로 보는 기독교론 - 요한복음과 에스겔을 중심으로

나주아 교수

요한복음은 기독교론과 관련하여 성전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중의 하나는 AD 70년 유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성전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과 기독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 구약 장막(성전)의 진정한 모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장막(성전)의 모형들의 완성과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의 성전 회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것이며(겔 34장). 종말에는 새롭게 회복되는 성소에 대해 예언(겔40-48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 모티프는 한 시대에만 국한되거나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자로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옛 성전의 성취요, 새 성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회복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겔 43:1-5, 44:4)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성전에서 넘쳐흐르는 물은 새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겔 47:1-12).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가득 맺히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겔 47:1-12). 이런 성전 회복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새 창조 모티프로 시작과 끝이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이 새 창조에 관한 내용으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나타난 성육신 사건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성전(요 1:1~14; 2:19-21)이심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묘사합니다(요 13:1-17; 14:2-3; 20:19-23).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אלהים)은 레위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과 같습니다(레 26:12; 신 23:15).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등장하는 그룹 천사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있는 그룹들과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룹들을 생각나게 합니다(출 25:18-22; 26:31).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구약의 성소에서 레위인들의 임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민 3:7-8, 8:26).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에덴동산에서 흐르는 물은 시편과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 모티프와 연결됩니다(시 46:5; 겔 47장). 창세기 2장 11~12절의 질 좋은 하월라 땅에 나는 순금은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순금을 연상케 합니다(출 25:11, 17, 24).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악과는 지성소 안에 위치한 언약궤에 보관한 십계명과 연결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이 에덴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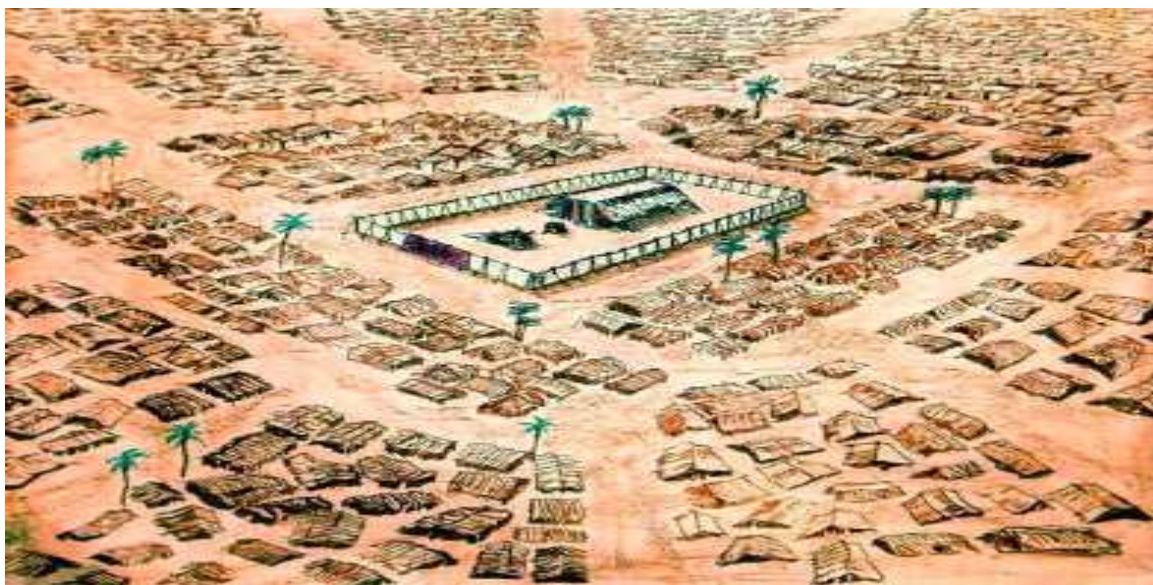
Lucas Cranach, The Garden of Eden, 1530.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 사역으로 가득한 에덴동산은 예배의 장소였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모습은 에덴과 연결됩니다(겔 47:1-12). 그 회복의 시작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작됩니다(겔 43:1-5).

이것은 에스겔이 37장에서 언급한 새 창조와 연결됩니다. 이 마른 뼈 환상에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겔 37:1-26)과 마침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겔 37:27-28; 40-48장).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막(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결국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에게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다윗 언약은(삼하 7:11-16) 구속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근간이며, 구약과 신약을 잇는 종말론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 모티프는 이런 구속사의 완성이 되신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여러 성전의 모형들의 완성과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5:39), 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

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씀은 이전에 성막(성전)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났던 장소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성전)에 나타난 쉼의 영광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형들의 성취와 완성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 성소의 원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소이며(출 29:42),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출 40:34-35)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요 20:21) 인도하는 새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종말론적인 성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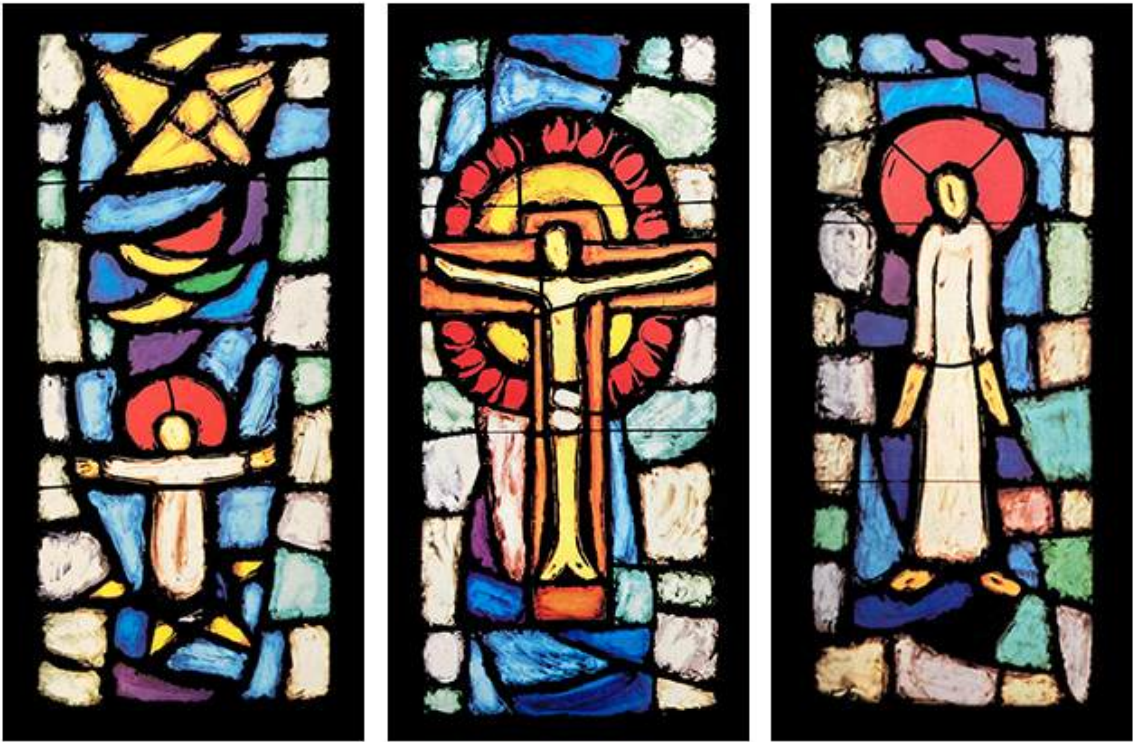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요 1:29, 36; 히 9:26)로 인해 각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영혼이 거둬낼 수 있게 하였고(겔 37:26; 요 3:3-7; 벰전 1:3; 창 2:7; 고전 15:45 참조),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생에 대한 요한복음 3장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중생은 물과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겔 37:25-27; 새번역)”.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요 2:19-21).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성전의 무너짐과 재건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으로 종말론적인 새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새 창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주제는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입니다. 새 창조를 통해 새 성전이 세워지고, 새 성전을 통해서 또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성전의 무너짐과 재건의 주권이 모두 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의 원형이시며, 성전을 건축하시는 건축자 되십니다.



이남규 '예수님의 일생', 61x450, Antique glass, 1989년, 서울 논현동성당.



나주아 교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하베스트 선교대학원 교무처장으로 있으며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선교사연장교육원에서 강의 하고 있다.



##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성보경 단장

성보경 단장님 반갑습니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가족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2년 경찰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저의 삶은 경찰관이라는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 정의, 섬김은 경찰 업무인 사회 질서 유지, 시민 보호, 법 집행에 있어서 매 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찰의 직무와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고민하던 중 뜻을 같이하는 동료 직원들을 만나 지난 2022년도에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이하 “해선단”으로 약칭)을 창단하여 경찰의 직무와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과 전 세계의 어려운 교우를 돕는 봉사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해선단원 대부분이 현직 경찰관이다 보니 해외에 직접 나아가 선교할 수 없기에 매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선교 사명이며 해야 할 역할임을 결단하고 선교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선단원이 경찰이기에 경찰관으로서만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였으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사역을 발굴하면서, 기본적인 후원을 넘어 경찰관으로서 경찰 사법적인 도움 통해 선교사를 도와 해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적극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기에 현지 경찰기관 및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해외선교사들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면서 이를 통해 경찰과 기독교의 가치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선단이 지속해 세계 곳곳에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경찰로서 공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0여 년의 경찰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제일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경찰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순간



이었기에 더욱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선 관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내 치안 정책 중 유일하게 관내 태권도장, 합기도장, 검도관 등 관장과 사범으로 무술보안관을 모집 운영하여 관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부녀자 밤늦은 시간 귀가 동행 서비스 등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범죄 모니터단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여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화해주며,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경찰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해외 선교 봉사 활동에 접목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자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을 창단하셨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봉사단 활동의 핵심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경찰관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해 치안과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희가 더큰 행복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각지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께서 고물가 등 해외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져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후원금, 전도물품(생활용품포함) 등을 지원하여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2년 6월 25일 경찰관들 10여명이 모여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창단1주년 기념사진 (국민일보 2023-06-25)

현재 후원대상 선교사에게 매월 선교비(선교사 1인당 10만원, 2년마다 연장)후원, 단  
원중 희망자와 함께 후원 선교지 봉사및 건축·교육비등 후원금 지원 , 선교사등대상범  
죄 피해예방교육및 경찰사법 관련법률자문 지원(법무법인 공동), MK·귀국선교사 등 대  
상 법률 교육, 외국경찰선교(현지 경찰관 초청), 선교사 지원을 위해 각 교단 및 선교  
단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체결 및 전담관리팀 운영, 가난한 나라에 주님의 사  
랑을 전하고자 해선단원·경찰관서 선교회원·각 교회 등 대상으로 헌옷, 학용품, 생필품  
등을 수집하여 해외 선교지에 발송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총회세계선교회GMS(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세계선교회(GMS)에서 범죄예방 및 대처등위기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라오스 선교사님 요청으로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그 때 군경선교회 한인선교회 워크숍 및 태국 경찰과의 MOU등도 진행했습니다.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선교사역은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 선교사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현지 경찰들과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봉사단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지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히, 현지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봉사와 선교의 기회를 마련하고,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해외선교봉사단원 치앙마이 선교비전트립



성보경 단장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헌신의 마음으로 선교사를 돕는 경찰해외선교봉사단을 창단하여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 절대영어를 통해 영어를 정복하십시오!

김양섭 교수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어로 전하는 것인데 선교사 대부분이 뜨거운 신앙의 마음만으로 현지 사역에 나가는데 정작 말씀을 전한 언어에 대한 준비 또는 무장은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현지에 나가는 실정이 대부분이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하물며 외국 현지에 나가서 언어가 안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그 자체를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현지에서 언어가 안 되는 상태라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을 만나 구제하는 정도를 벗어가기 힘들고 구제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받는 그들에게 물질의 바램을 키우거나 진행하다 못하면 오히려 원망하는 역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준비하려고 해도 영어로 말이 안 되는 한국식 영어학습 자체가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대학 졸업까지 장장 14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이후 취업, 입사 준비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토익 토플 등의 시험을 치르면서 영어 원서나 영자로 된 잡지·신문 등을 읽고 이해하는 고차원의 영어 실력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대화를 하는 회화 능력에서 95%에 이르는 한국인 대부분이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는 실상은 한국인 영어 회화가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영어학습에는 단적으로 3개가 없고 7가지의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군 장병들에게 특강을 하는 모습. 김양섭 원장 제공

### 첫 번째, 학(學)과 습(習)

학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입력 과정이다. 습은 반대로 출력의 과정이다. 피아노든 골프든 무엇이든지 학 습의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비율을 너무 간과했다. 피아노의 경우 '체르니 40까지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 5년 이상의 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론상의 학(學)은 단 하루면 익힐 수 있는 분량이다. 즉 가장 이상적인 학과 습의 비율은 학이 1%, 습이 99%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언어야말로 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 8천 번, 1만 번을 외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에는 99%에 이르는 습 시스템이 있는가? 없다. 그렇기에 안되는 것이다.

### 두 번째, 영어의 왕도(王導)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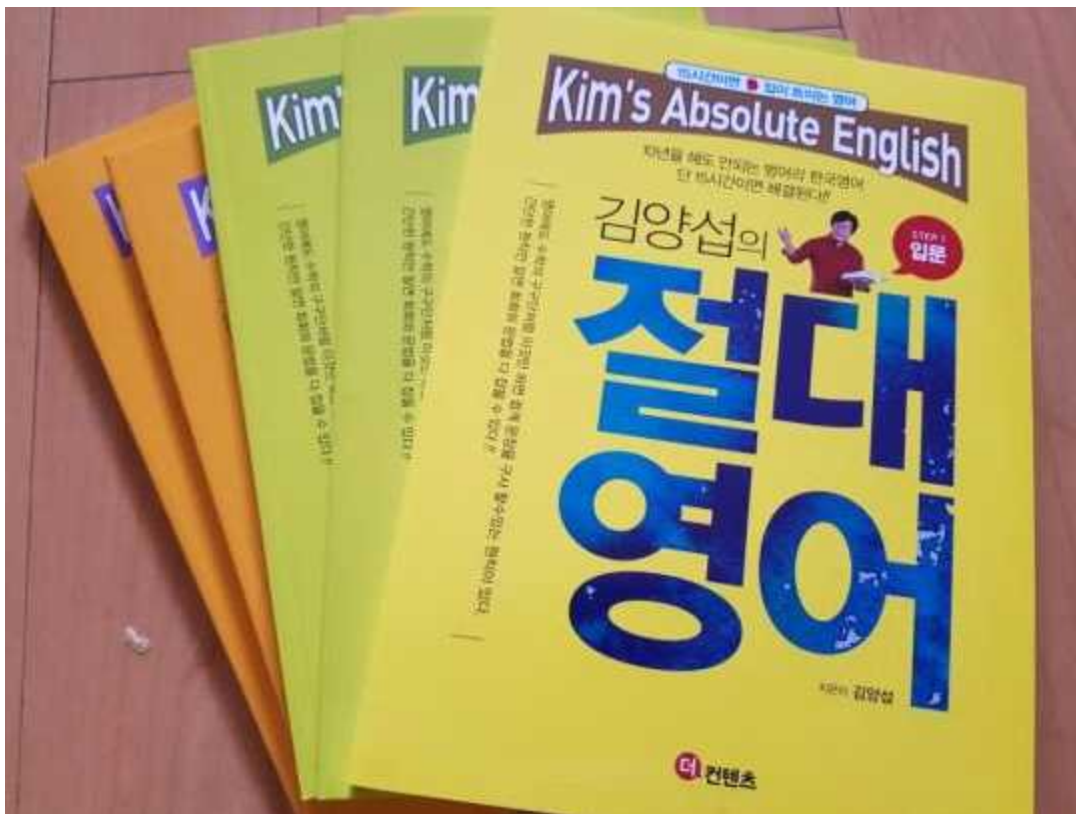
두 번째를 말하기에 앞서 첫 번째에 관해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방대한 양의 영어를 어떻게 습을 합니까?"라고 반문을 할 것이다. 수학으로 예를 들겠다. 전 세계인들이 수를 셈함에 있어서 기초연습을 하는 단 한 가지. 바로 구구단이다. 어째서 함수는 연습하지 않고 구구단만 연습했을까? 구구단은 이것만 연습하면 셈을 할 수 있다는 결정체였다. 구구단을 모르면서 함수나, 미적분을 하고 방정식을 하면서 셈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수학 세계에서는 구구단이 셈의 왕도였다.

그렇다면 영어에서도 수학의 구구단처럼 이것만 연습하면 영어가 가능하다'라는 무언가가 있었나? 영어에

는 왕도가 없었다. 하지만 절대 영어에서는 수천만 영어 문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서술에 따라 정형화된 6개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6개 패턴 중에 2 패턴만 숙지해도 영어 회화를 함에 있어 95%의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 세 번째, 한글에서 영어로

지난 시간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은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왔다. 이것은 모두가 큰 착각을 한 것이다. 이것은 말하기 위한 영어 공부라 아닌 단순 지문에 나와 있는 영어를 이해했을 뿐이다. 말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은 독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 시,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한글이 먼저 생각이 난다. 즉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한글을 입에서 영어로 바꾸어 말하는 흐름으로 영어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체제가 전혀 없어 회화가 불가했다. 영어 한글로 배웠기에 영어 지문을 이해는 할지라도 영어로 말 한마디 불가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영어이다.



### 7착(錯) 7가지를 착각한다.

한국에서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7가지의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영어 회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 7가지에 철저하게 몰입해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현실이다.

**첫째, <스펠링을 외우는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 '냉장고'라는 단어를 외울 때 소리가 나는 음절대로 쓰는 연습을 했지,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외우진 않았다. 영어권의

아이들도 절대로 단어를 익힐 때 스펠을 외우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영어교육에 아주 큰 장애를 가져다줬다고 생각한다. 귀를 먹게 한 것이다. 한글도 모음 발음이 헛갈리듯 영어 또한 마찬가지다. 이 소리를 귀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스펠링을 외움으로써 영어를 귀로 듣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해석하는 것>이다.**

영어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주어를 찾은 다음 문장의 맨 뒤로 가서 마침표부터 올라오는 역순으로 해석하며 주어 다음에 있는 동사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대화할 때는 소리가 앞에서부터 들리는 것이 당연지사. 문장이 끝난 뒤 뒤에서부터 해석한 와중에 상대방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얘기를 이어간다.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문장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했다. 즉 영어를 해석 습관이 영어 듣기를 안 듣고 막아 버린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절대영어 학습방법**

6가지 잘못된 학습법을 버리고, 자유롭게 영어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하자!

01

단어를 스펠링으로 외우지 말고 소리가 나는 대로 익혀라

스펠링을 외우는 것은 우리말을 익힐 때 냉장고를 자음 모음으로 분리해서 외우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것이다. 스펠링을 외우지 말고 소리가 나는 대로 익히자.

02

문장을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영어를 해석하려면 주어를 찾은 다음 문장의 뒤에서부터 올라와야만 해석이 된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독해 위주의 학습법은 병어리 한국영어의 주범이다.

03

처음부터 영어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영어로 말하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 할 때 미국인은 미국인 억양과 발음으로, 일본인은 일본인 억양과 발음으로 해도 아무렇지 않다. 우리도 처음부터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어 발음은 내가 영어로 자유롭게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신경 쓰면 된다.

04

단어부터 먼저 외우지 말고, 문장의 골격(6PA, 6PS)부터 익혀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단어 부담이다. 이미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는 머리 속에 형성되어 있다. 단어보다는 문장의 틀을 먼저 익혀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절대영어의 6PA / 6PS로 문장의 틀을 익힌 후 필요한 단어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익히면 된다.

05

영어로 바로 할 수 있게 6PA, 6PS를 연습하자

우리나라의 영어회화는 영어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식이었다. 그렇게 외운 문장은 그 환경이 되어야만 활용 할 수가 있다. 그 보다 어떤 한국말이든 영어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대 영어의 6PA / 6PS이다.

06

원어민 영어학습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원어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착각이다. 원어민들에게 무엇이든 물어 볼 능력을 갖춘 다음 그 때부터 대화 상대자로 필요한 것이 원어민들이다.

### 셋째, <발음을 신경 쓴 것>이다.

발음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모국어의 억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발음의 단계도 타이밍이 있다. 기어 다닐 때, 걸을 때, 뛰어다닐 때로 예를 들면 발음은 걸을 때 배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어 다닐 때부터 발음을 신경 쓴다. 걸을 때란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조합해서 나올 때를 얘기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문장 조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을 신경 쓰려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일명 '콩글리시'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넷째, <단어 암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우리는 단어의 암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한다. 물론 영어단어를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작 문장을 만들 수 없다면 수천, 수만 단어의 암기는 무의미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단어의 암기보다는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다. 건물도 골격이 먼저 세워져야 하듯, 영어도 골격이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 즉, 2만 2천 단어를 먼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다.

### 다섯째, <영어 문장 외우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문장을 외우면서 교육받아왔다. 문장만 달달 외우다 보니 이 문장을 내가 언제 써먹을까 하면서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다 결국 정작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얘기를 꺼내야 할 순간에는 이미 머릿속이 백지가 되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국말이라도 즉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 영어에서는 영어를 아주 포기했던 학생들도 '6 PA'를 통해 그 어떤 한국말도 바로 영어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 여섯째, <아이들만 영어 공부?>다.

가장 큰 교육은 가정에서 나오며 부모에서 비롯된다. 유아기, 소년기에 가장 좋은 선생님은 집 안의 부모님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언어는 99%는 습(習)이다. 절대 영어의 '6 PA'는 우리말 서술을 6개 패턴으로 분리하여서 한글 문장을 즉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6 PA를 습득하면 훨씬 빨리 숙련이 된다. 구구단을 익히면 구구단을 가르칠 수 있듯 6 PA를 먼저 숙지한 부모가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직접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 일곱째, <원어민에 대한 착각>이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원어민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원어민 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라 규정하고 원어민 지원 및 예산은 중단되었다. 영어권 원어민들은 절대로 한국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없다. 이유는 양국의 언어를 모두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모르는 그들



이 무슨 수로 우리말을 영어로 이끌어 줄 수 있겠는가? 원어민은 원어민의 포지션이 있다. 복싱을 예로 들자면 원어민은 실전 연습 상대인 '스파링 상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어민을 코치로 착각을 했다는 점을 일곱째 착각으로 꼽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절대 영어”이다. 나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영어학습을 2일, 15시간 동안 학습하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우리말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여 말할 때 수천만 영어 문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서술에 따라 정형화된 6가지 패턴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마치 ‘영어의 왕도’처럼 발견했고, 이것을 체계화시켰다. 바로 6 PA(6 Patterns of Asking)로 수학의 구구단처럼 익히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 특히, ‘성경절대영어’를 완성했다. 즉 성경 내용을 대담으로 간주하고 우리말로 그 대답이 나오도록 먼저 질문을 만들어 성경을 주제별로 문답 대화하는 식이다. 그래서 신약 88 주제, 구약 89 주제를 주제별 문답 대화식으로 전 5권의 책과 177 영상으로 만들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이러한 학습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어로 전한다”라는 대명제를 쉽게 해결하면서 우리 본연의 복음 전도사역에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김양섭 교수

대한민국 영어교육 혁신을 위해 6PA(의문문) / 6PS(평서문)를 창안하여 영어 학습법을 교회, 군부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고 있으며, 절대영어의 저작이다.

못 위의 잠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문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 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시인

1966년 2월 8일, 충남 논산시출생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뿌리에게' 등단

제30회 대산문학상 시 부문

안성시 박두관 문학과 사진

현재의 시점에서 발견한 아비제비와 과거 화자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 애상적 느낌의 현대시이다.

못 위의 잠"에서 시인은 아비 제비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구체적인 대상과 자연물을 병치하여 인물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시어를 통해 간접적으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였다

지붕아래 등지의 누군가 박아놓은 못 위에서 꾸벅거리며 잠을 자는 아비의 모습과 야근으로 지칠 대로 지친 창백한 모습으로 퇴근하는 아내에게 미안하여 다가가지도 못하는 실업의 남편의 모습돌아오는 길 그림자 마저 꺾이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서 가족의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내는 나희덕시인의 마음은 골목길처럼 소박하고 따스한 사람일 것이다.



#### 남기선 시인

시마을 시낭송작가협회 고문, “남기선의 시로 물들기” 연구소장, 미래올림교육 연구소 원장으로 물향기 문학상 수상하였습니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을 섬기는 스텝과 교수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치앙마이 선교센터가 완공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31회 세계선교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재충전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매월 발행되는 The Harvest 소식지를 더 멋지게 꾸며 주실 편집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 좋은 강의로 선교사의 지성과 영성을 넓고 깊게 해 주실 교수님을 찾습니다.
- 선교사연장교육원 한국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실 손길을 찾습니다.

문의 [runtothere12@gmail.com](mailto:runtothere12@gmail.com) 윤기철 원장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적응훈련원의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2층 숙소 건축비 후원(서부중앙교회)



방문에 기증단체의 이름이 붙은 방패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아치형의 창문이 있는 예배실로  
사용될 3층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선교적응훈련원 건축을 위한 후원 요청

1층(사무실, 도서관, 세미나실)과 2층(숙소12실)이 완공되었습니다. 2층 숙소 각 방에 들어갈 에어컨, 침대, 책상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개의 방마다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층계와 3층 예배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한 공사비도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잘 마련되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베스트 선교사적응훈련원 완공을 위한 건축 후원

계좌 \_ 460 21 0196 768 국민은행 이성상